

일개 지역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

최은희¹, 모문희^{1*}
¹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Body Image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of One Area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un-Hee Choi¹ and Moon-Hee Mo^{1*}

¹School of Nursing, Yeungnam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요 약 일개 지역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로 D광역시 소재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00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신체질량지수에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녀 모두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 = 15.86, p < .001$), 신체상에서 남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대학생의 신체상이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비만인 대상자보다도 정상체중인 대상자의 신체상이 더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올바른 체중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body image according to BMI. The subjects were 600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surveys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analyzed by the SPSS 20.0 program. Body mass index(BMI) and body image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MI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mong women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BMI and body image according to gend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ody image according to BMI between men and wome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nd especially subjects of under weight had highest body image($F = 15.86, p < .001$). These results mean that body weight misunderstood by the early adulthood. It is needed to revise of perception on their own body weight in order to improve body image.

Key Words : Body image, Body mass index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신체에 관한 정신적 표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지각하는 신체상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1]. 이 중 올바르지 못한 신체상은 자신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신체상이 제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면 열등감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확립도 어렵다 [2,3].

최근 여성에게서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점점 마른 몸매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받은 영상매체, 광고매체, 패션산업 그리고 미용 산업과 다이어트 산업들은 날씬한 몸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날씬한 몸매가 여성에게는 힘, 능력, 자유,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환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대해 불만족을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Mo(Yeungnam College)

Tel: +82-10-7502-1085 email: mhmo1@ync.ac.kr

Received February 18, 2013

Revised (1st February 28, 2013, 2nd March 6, 2013)

Accepted March 7, 2013

느끼게 하고[4] 이 때문에 정상 체형인 사람들도 체중조절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5]. 각종 대중언론과 매체의 마른 유행에 대한 선호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신체 외형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고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마저도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되며 스트레스 원으로도 작용한다[6]. 자신의 신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운동에 대한 흥미도 없고 즐기지도 못하며[7,8] 무분별한 체중 감소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을 가짐으로서[9,10] 더욱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몸매에 관해서는 남성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여성들처럼 무조건적으로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몸매나 보디빌더와 같은 근육질의 몸매를 선호하고 ‘몸짱’이 되길 원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몸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외모 및 신체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여학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Lee & Oh, 2003; Lee, Kim, & Yom, 2005; Gim et al., 2007) 하였으므로 남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3,5,11].

남성은 여성에 비해 체중을 과대평가하지는 않으나 정상체중임에도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자신의 체중을 잘못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다[12]는 측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상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올바른 신체상 정립을 위한 중재가 실제적으로 여성과 남성 중 어느 쪽이 더 필요한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신체질량지수 정도에 따른 신체상을 파악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마른 체형과 근육질의 몸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으며[3] 식욕부진과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11].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신체상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신체상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같은 성인초기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후의 대상자들에 비해 건강습관의 고착화가 덜 되어 있어 수정하기가 성인후기 대상자에 비해 용이하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보다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 대상자가 신체상에 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13] 이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체상은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을 뿐 만 아니라(박영숙, 2005; 황규자와 배진경, 2005; 염계화와 유진, 2007)[14-16] 생활만족도(임승

현, 2009)[17] 및 자아존중감(육영숙, 2008)[5]과도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정덕조, 2006; 황란희, 2009)[3,11]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상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현상명, 2005; 이병주 등, 2001)[18,19] 높은 신체에 대한 관심도와 본인의 신체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갖는 청소년 후기 또는 성인 초기의 대상자(Thomson, & Chad, 2000)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 연구한 것은 없었다. 현재까지 연구는 대상자가 여대생으로만 되어있거나(정덕조, 2006)[3] 남녀가 모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이정숙, 2001)[19] 제한적이어서 남학생과 여학생 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상을 비교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지역의 남녀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 정도에 따른 신체상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후기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신체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을 확인한다.
2.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을 확인한다.

1.3 용어정의

1.3.1 신체질량지수

신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지수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만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11]. 본 연구에서는 대한비만학회(2001)에서 제시한 신체질량지수의 계산법에 따라 한국인을 기준으로 18.5kg/m²미만은 저체중, 18.5이상-23kg/m² 미만은 정상, 23이-25kg/m²미만은 과체중, 25kg/m²이상부터는 비만군으로 구분하였다[20].

1.3.2 신체상

자신의 마음속에 형성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형상으로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외부 자극 및 환경을 통한 경험 사이에서 생겨난 총체적 이미지이다[19]. 본 연구에서는 Hyeon(2004)의 신체상 만족 척도 설문지로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를 의미한다[18].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은 2010년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D광역시 소재 남녀 고등학생 310명과 Y대학 남녀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보조원들이 직접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구동의서를 포함한 질문지를 배부하고 직접 작성하게 한 후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이 작성한 체중과 실제 체중계로 측정된 체중의 차이가 유의한 차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문지에 기록한 본인의 체중 기록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는 D소재 Y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으로 본인에게 몸무게를 설문지에 작성한 후에 전자식 체중계로 실제 측정하여 그 차이를 분석한 결과 p 값이 .09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기초로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620부의 설문지 중 질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고등학생 설문지 17부, 대학생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600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몸무게(kg)를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대한비만학회(2001)에서 제시한 신체질량지수의 계산법에 따라 한국인을 기준으로 18.5kg/m²미만은 저체중, 18.5이상-23kg/m²미만은 정상, 23이상-25kg/m²미만은 과체중, 25kg/m²이상부터는 비만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20].

2.3.2 신체상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이정숙(2001)이 선행연구 Mendelson, Andrews, Balfour & Bucholz, 1997)를 바탕으로 사용한 도구 중 Hyeon(2004)이 일부를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이다 [18-19]. 이 도구는 외모 5문항, 키 6문항, 몸무게 8문항, 식습관 6문항인 4개의 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가끔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부정문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상에 만족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Hyeon(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79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8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과 학력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은 X²-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은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s test로 사후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연구자가 임의로 편의 선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성이 74.5%로 여성이 많았고, 학력은 대학생 51.2% 이었다. 연령은 10대가 52.2%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몸무게는 50kg 이상 60kg 미만이 4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600>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53	25.5
	Female	447	74.5
Age	≤ 19	311	51.8
	20 ≤	289	48.2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	293	48.8
	College student	307	51.2
Height(cm)	≤ 159	139	23.2
	160-169	312	52.2
	170-179	125	20.9
	180 ≤	22	3.7
Weight(Kg)	≤ 49	165	28
	50-59.	275	46.7
	60-69	97	16.5
	70-79	39	6.6
	80 ≤	13	2.2

3.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

남성의 신체질량지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X^2 = 8.12, p = .044$), 신체상은 유의한 차가 없어($t = 1.81, p = .073$) 남성은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신체상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의 신체질량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X^2 = 6.99, p = .072$) 고등학생의 신체상이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 = 2.88, p > .004$)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3.3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

고등학생($X^2 = 22.69, p < .001$)과 대학생($X^2 = 36.10, p < .001$) 모두 성별에 따라 신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상은 고등학생($t = 6.34, p < .001$)과 대학생($t = 6.90, p < .001$) 모두 남성의 신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성이 신체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3.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

신체질량지수에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성과 여성 모두 신체상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 = 15.86, p < .001$). 특히 모든 군에서 저체중군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신체상이 높게 나타나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4. 논의 및 고찰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신체질량지수 정도에 따른 신체상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에서 신체질량지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으나 여학생은 유의한 차가 없었다. 특히 고등학생 중 저체중인 남학생의 비율이 9.9%로 대학생의 2.0%에 비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저

[Table 2] Body mass index and body image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n=600>

Classification	Body mass index				X^2	p	Body image		t	p	
	Under weight (%)	Normal weight (%)	Over weight (%)	Obesity (%)			M	SD			
Male	High school	15(9.9)	45(29.8)	11(7.3)	9(6.0)	8.12	.044	93.06	14.21	1.81	.073
	University	3(2.0)	44(29.1)	15(9.9)	9(6.0)			89.06	12.46		
Female	High school	70(16.1)	121(27.8)	9(2.1)	4(0.9)	6.99	.072	79.99	16.00	2.88	.004
	University	54(12.4)	159(36.5)	11(2.5)	8(1.8)			75.80	14.42		
Total	High school	85(14.5)	166(28.3)	20(3.4)	13(2.2)	9.94	.019	83.57	16.57	3.60	<.001
	University	57(9.7)	203(34.6)	26(4.4)	17(2.9)			78.86	15.05		

[Table 3] Body mass index and body image according to gender

<n=600>

Classification	Body mass index				X^2	p	Body image		t	p	
	Under weight (%)	Normal weight (%)	Over weight (%)	Obesity (%)			M	SD			
High school	Male	15(5.3)	45(15.8)	11(3.9)	9(3.2)	22.69	<.001	93.06	14.21	6.34	<.001
	Female	70(24.6)	121(42.6)	9(3.2)	4(1.4)			79.99	16.00		
College	Male	3(1.0)	44(14.5)	15(5.0)	9(3.0)	36.10	<.001	89.06	12.46	6.90	<.001
	Female	54(17.8)	159(52.5)	11(3.6)	8(2.6)			75.80	14.42		
Total	Male	18(3.1)	89(15.2)	26(4.4)	18(3.1)	54.43	<.001	91.18	13.52	9.44	<.001
	Female	124(21.1)	280(47.7)	20(3.4)	12(2.0)			77.78	15.31		

[Table 4] Body image according to body mass index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n=600>

Classification	Body mass index	Body image		F	p	Post hoc (Scheffe's test)	
		M	SD				
High school students	Male	Under weight ^{a)}	100.47	12.59	5.97	.001	a>d, b>d
		Normal weight ^{b)}	95.24	11.71			
		Over weight ^{c)}	87.27	14.64			
		Obesity ^{d)}	79.67	16.76			
	Female	Under weight ^{a)}	89.07	14.20	13.48	<.001	
		Normal weight ^{b)}	76.53	15.07			
		Over weight ^{c)}	70.00	9.11			
		Obesity ^{d)}	65.25	12.01			
College students	Male	Under weight ^{a)}	102.33	10.26	4.50	.006	a>d, b>d
		Normal weight ^{b)}	90.95	10.97			
		Over weight ^{c)}	87.50	13.05			
		Obesity ^{d)}	77.25	13.17			
	Female	Under weight ^{a)}	84.22	15.54	11.85	<.001	
		Normal weight ^{b)}	74.23	12.84			
		Over weight ^{c)}	65.09	13.01			
		Obesity ^{d)}	64.25	13.74			
Total	Under weight ^{a)}	88.71	15.28	15.86	<.001	a>b, c, d	
	Normal weight ^{b)}	79.46	15.34				
	Over weight ^{c)}	78.86	16.19				
	Obesity ^{d)}	72.76	15.36				

체중인 대상자가 많은 고등학생의 신체상이 오히려 대학생에 비해 높은 것을 볼 때 대상자들의 다른 몸매 선호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임의로 추출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므로 실제로 남자 고등학생들의 저체중 비율이 대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신체상의 경우, 남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대학생의 신체상이 고등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여대생의 경우, 대학생활을 통해 오히려 신체상이 부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신체상과의 관계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생활습관 개선 및 신체상 변화를 위한 교육이 시급한 대상자가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어 향후 대학생을 위한 집중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성별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저체중인 대상자가 여학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여학생의 저체중 선호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상의 경우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Gillen 과 Lefkowitz(2006)의 연구와 Lim(2009)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22,16]

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1)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자신의 체형에 더 불만족하고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 [19].

본 연구 결과에서 저체중인 대상자의 신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체중에 대한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체중이나 과체중인 여자 대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주관적 인식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체중조절 행위를 시도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및 학교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체중의 비율이 높은 여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자의 신체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체중이 신체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만인 대상자보다도 정상체중인 대상자의 신체상이 더 부정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올바른 체중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중재 개발이 요구된다.

정상체중이나 과체중인 여자 대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왜곡된 주관적 인식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체중조절 행위

를 시도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D고등학교 일부 남녀 학생 310명과 Y대학 남녀 학생 310명이다. 연구도구는 외모 5문항, 키 6문항, 몸무게 8문항, 식습관 6문항인 4개 영역의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과 학력에 따른 신체질량지수와 신체상은 X^2 -test, t-test를 이용하였고,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은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é's test로 사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체질량지수는 남학생에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X^2 = 8.12, p = .044$), 신체상은 여학생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X^2 = 22.69, p < .001$)과 대학생($X^2 = 36.10, p < .001$) 모두 성별에 따라 신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체상은 고등학생($t = 6.34, p < .001$)과 대학생($t = 6.90, p < .001$) 모두 남학생의 신체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신체질량지수에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녀 모두 신체상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 = 15.86, p < .001$), 특히 모든 군에서 저체중군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신체상이 높게 나타나 신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신체질량지수에 따라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남녀 모두 신체상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저체중군인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신체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상을 파악하여 올바른 체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1] Ahn, S. S. Relationships among the Subjective Perception About The obesity, BMI, Intrinsic Motivation and Ego-resiliency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0.
- [2] Choate, L. Counseling adolescent girls for body image resilience: strategies for school guidan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0(2), p. 67-72, 2007.
- [3] Jung, D. J. Influence of Weight control behavior, Body image, Self-esteem,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Mental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University Female Students by BMI(Body Mass Index). *Exercise Science*, 15(4), p. 365-376, 2006.
- [4] Kim, J. H. The effect of body image satisfaction, stress coping style, binge eating on depression in obese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2004.
- [5] Yook, Y. S.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Eating Disorder,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Femal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9(4), p. 105-115, 2008.
- [6] Kang, J. S., Kim, Y. Y., Kim, M. Y., & Jung, D. Y. A Study on Body Attitude, Body Mass Index, and Perceived Stress among Women's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3(2), p. 296-305, 2009.
- [7] Kim, Y. J., Choi, S. D., Suh, K. H., & Kim, S. M. Restrained Eating, Physical Activity, and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among College Women with Negative Body Image. *Korea Sport Research*, 18(4), p. 471-480, 2007.
- [8] Steiger, H., Fraenkel, L., & Lechner, P. Relationship of body image distortions, irrational cognitions, and body weight in eating disordered fe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p. 423-428, 1989.
- [9] Berge, P., Tompson, J. K., Obremski, B. K., & Covert, M.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a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investigation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earance comparis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 p. 1007-1020, 2002.
DOI: [http://dx.doi.org/10.1016/S0022-3999\(02\)00499-3](http://dx.doi.org/10.1016/S0022-3999(02)00499-3)
- [10] Cho, H. S. A Study on Body Image and Vegetable Intakes by Body Mass Index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Chungn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 National University, 2010.
- [11] Hwang, R. H. A Study on Eating Disorder, Body Image and Self-Esteem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5(4), p. 328-335, 2009.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9.15.4.328>
- [12] Lee, Y. M.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BMI, Figure Recognition, Eating Habits and Demands for Nutrition Counseling i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08.
- [13] Thompson, A. M., & Chad, K. E. The relationship of pubertal status to body image, social physique anxiety, preoccupation with weight and nutritional status in young females.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 p. 207-211, 2000.
- [14] Hwang, G. J., & Bae, J. K. The Influence of Body Image on Self-Efficacy of College Woman Major in Danc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6(2), p. 245-256, 2005.
- [15] Park, Y. 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for All Activity and Body Image, Feeling of Self-Esteeming among University'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6), p. 857-864, 2005.
- [16] Youm, G. H., & Yoo, J. The effect of body image self-discrepancy on exercise behaviors and emotion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1), p. 347-358, 2007.
- [17] Lim, S. H. The effect of perceived body image on emo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36, p. 783-794, 2009.
- [18] Hyeon, S. M. The Relationships of Middle School Students' Body Imag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04.
- [19] Lee, J. S. Correlation among adolescents gender, obesity, others appraisal of their bodies and the adolescents body-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1.
- [20]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Clinical bariatrics*. Seoul : Korea Medical Book, 2008.
- [21] Lee, B. J., Kim, H., Yang, Y. D., Sin, J. S., Huh, S. S., & Hwang, H. H. Body image perceptions and its related problems of local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2(5), p. 683-688, 2001.
- [22] Gillen, M. M., & Lefkowitz, E. S. Gender role development and body image among male and female

first year college students. *Sex Roles*, 55, 25-37, 2006.
DOI: <http://dx.doi.org/10.1007/s11199-006-9057-4>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모 문 희(Moon-Hee Mo)

[정회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1995년 5월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병원 간호사
- 2007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겸임, (현)조교수

<관심분야>
의·생명공학